人格 無限 內實擴充化 德 敬의 研究

安 鍾 沄*

目 次

緖論
本論
Ⅰ. 敬의 古典的 考察
Ⅱ. 退溪의 敬 思想
Ⅲ. 敬의 現代的 考察
1. 現代的 德目으로서의 敬
2. 社會人과 敬
3. 學生과 敬
4. 敎育者와 敬
5. 宗敎人과 敬
6. 政治人과 敬
結論

緖 論

本 論文은 「敬」에 관한 研究요 「人格」이 主題가 아니나, 人格은 動物科에 속한 人生이 全 生物가운데 最高의 生命體일 수 있는 것은 「人格 所有者」이기에 「人格者」되는 길은 무엇이며 主題인 「敬」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探索하기로 한다.

「人格」은 무엇인가?

일반 國語辭典 풀이부터 알아본다.

① 사람의 품격(品格)·품위(品位)·자격(資格)

② 心理 : 개인의 知·情·意 및 육체적 측면을 총괄하는 전체적 統一體.

③ 倫理 : 도덕적 행위의 주체

④ 法律 : 법률 관계 특히 권리·의무의 주체

*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⑤ 宗敎 : 神에 대하여 人性을 갖춘 품격. 神格과는 반대어이다.

⑥ 社會 : 공동사회의 주체

(綜合國語辭典 語文閣 刊)

다음 哲學大辭典을 통해서 전문적 해설을 알아본다.

人格 : [英] Personality, [獨] Personlichkeit, [佛] Personalite

사람의 특성을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 그러나 사람의 특성을 주로 1) 個體의 면에서 파악하느냐, 2) 사회의 면에서 파악하느냐, 3) 사람(개체)과 사회(환경)의 관계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게 된다.

1)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다른 개체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그 개체의 특성 전체(통합된 특성)를 인격이라 보는 것으로 인격은 다른 개체로부터 質的 및 量的 분화된 것이라 본다. 다른 하나는 각 개체에 공통된 구조(전체의 틀)에 착안하여 그 내부구조(내부관계)의 차이에 의해 인격을 구별하는 것이다.

2)의 경우,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가 받아들이는 인상이나 평판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적 所産이나 가치의 類型을 정해서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에 따라 인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3)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개체의 내부의 힘(심적 에너지)이 바깥으로 향하느냐, 안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인격을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체 내부의 작용이 통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인격을 규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사람과(주로 사회적인) 환경의 力學的인 관련을 중요시하여 인격을 사회적인 場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람>의 특성이라 보는 것이다.

넷째는 인격을 개체와 환경이 관련하는 場으로 보고 그 장의 구조(체제)로부터 인격을 규정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개체와 환경의 적응·변혁을 중요시하여 그 방식에 따라 인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격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多樣하나 인격 연구의 장래성은 3)의 경우의 넷째·다섯째

의 방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哲學大事典 學園社 刊)

'人格'에 대한 國語辭典的 解意와 哲學辭典的 解意는 지나치게 거리가 멀며 우리가 慣用하고 있는 '人格'은 國語辭典 解意 쪽일 것이고 本論文 主題 또한 倫理 道德的 人格論이기에 哲學 專用的 人格論은 言及 않기로 한다.

人間된 品格·品位·資格으로서의 人格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測定해서 사람마다 評價하는가?

物件은 그 效用에 따라서 存在價値가 等差別로 인정되고 있으나 人間의 경우는 用度로 評價되지는 않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여기에 人間은 道具的 存在가 아님이 前提되었음을 알게 된다.

人間은 自體目的的 存在로써 무엇에도 또 누구에게도 利用당할 수 없으며 本人 自身 他人이나 他者를 利用하려는 의식구조를 가져서도 안되는 存在다.

여기 人間과 人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人間은 人格者여야 他人에게 利用당하지도 他人을 利用하지 않고 自體 自立하여 獨立人이어서 尊嚴의 기초가 다져진다. 人格者가 獨立人이라 하여 孤立者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孤立者는 數많은 사람들 속에서 他人들과 어울릴 사람없이 自力으로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 받지 않으며 草木이 한 자리를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獨立人은 草木같은 人生이 아니라 自力으로 自身만 살아가는 것 以上 人間共同體의 主役으로써 參與하는 社會를 이끌고 갈 수 있는 自主 自活 能力人을 말한다.

獨立人은 他動物的 生存方式과 次元을 달리하는 人間社會 公同體의 責任意識에서 相生 共榮을 도모하는 主體라는데 尊嚴한 存在인 점이 있다.

그러나 「人間은 尊嚴하다」고 通稱하더라도 萬人이 同等하게 均一的 尊嚴者가 아니다. 人體의 구조양식도 各 細胞의 구성 차이에 따라 다양하여 同一한 존재자 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人間의 尊嚴性도 결코 同等하지 않다.

人間이 尊嚴한 것은 그 品位 즉 人格을 갖췄기 때문이요, 人品은 萬物이 萬象하여 萬差하듯, 萬人 萬品의 人格으로 살아가는 것이 人間社會相이다.

어찌해서 人間은 萬人 萬品의 人格으로 千萬人相마다 多樣한가?

그것은 各者 人格을 얼마나 陶冶하였느냐의 努力度가 一定치 않고, 人間에 대한 自覺의 정도가 無量하기 때문이다. 人體의 경우 예를 들어 韓國人 男子의 體重은 60~70kg, 身長은 1m 65~75cm로 一定하다 하겠으나, 人格 陶冶는 얼마나 努力하느냐에 따라 無窮한 차이가 있고, 人間에 대한 自覺의 水準도 一定한 것이 아니라 賢·愚의 정도가 無量覺이다.

人格의 高低는 어떻게 評價되는가 具體的이며 一括的으로 定義내리기로 한다.

「人格」에 앞서 「人間」이라는 槪念부터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論文에서는 詳說하지 않기로 한다. 筆者가 拙著 「民主倫理學 要論」(螢雪出版社 刊)과 「相生倫理學」(大眞大學校 出版部 刊)에서 詳說하였기에 再三 論하기를 줄이기로 한다.

「사람」 「a man」 「das man」 「ひと」와 같이 表音文字로 表記하거나 表音文字 語彙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은 모르나, 「人間」이라 表意文字로 表記하거나 表意文字 語彙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經驗하지 못한 새 事實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眞理를 探究하는데는 表意文字를 사용하는 것이 效能上 越等히 높음을 알게 된다.

「人間」이라는 單語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바 「사람」은 무수한 事物 가운데 우리 人種을 구별하는 符號 이외의 뜻이 없다.

「너! 사람이 되어라!」하면 經驗社會의 「사람들」을 指稱해서 모든 사람들 中 「누구」 「어떤 사람」이 明示되지 못했다.

哲學을 한다는 學者, 人間學으로서의 倫理 道德學을 전공한다는 學者 중에도 「사람됨의 뜻」 「사람 되는 길」 등의 말을 사용함을 볼 때 無意味語의 反復에 苦笑를 禁할 수 없게 한다.

「사람」은 이미 모든 사람이 人類를 動物科에 속해 있는 同等한 動物 中 人種 즉 「사람」이라는 動物을 區別한 名稱에 불과하다.

「사람 됨의 뜻」은 「개가 개 됨의 뜻」 「소가 소 됨의 뜻」이나 추호의 차이가 없다.

어떤 別世界가 있어서 聖人들만 사는 나라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標本삼아 그 別世界人되라 라면 「사람됨의 뜻」이 이해되겠으나, 善人 惡人들이 共存하고 있는 現世界 中「누구」를 指目해서 「(어떤)사람 되어라」는 것인가?

참으로 뜻없는 「사람」이 되라는 一般名辭 「사람」의 要請은 無目的的 人生에 대한 所望이다.

그러나 表意文字로 表記한 「人間」은 「사람들 속에 있는 나」로써 獨生할 수 없으며 해서는 않되는 共同社會的 存在임을 規定한 名詞이다.

만일 사람이라 하여 사람들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은 되어도 「人間」은 못된 「動物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개·돼지·소·말 등과 存在價値 차이가 없는 一般名辭「사람」이어서 개·돼지·소·말 등과 一般系列의 動物일 뿐이므로 萬物 가운데 唯獨 尊嚴한 存在일 이유가 없다.

韓國語史의 初期 表意文字 語彙가 도입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람」이라고만 알던 때는 「人間은 萬物가운데 最貴한 存在」임을 몰랐을 것이다.

「人間」이라는 語彙를 배워 알게 됨으로부터 人間이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文字 가운데 表意文字의 優越性을 깨닫지 못하고 表意語彙를 表音文字로 變記하는 사람들, 實例로 「한글 專用主義者들」은 뜻을 기록하여 傳하고자 한 本心을 폐기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당연히 「사람은 사람으로 足한 것, 굳이 漢字로 人間이라 外來字語를 써야 옳은가?」 반박할 것이다.

이러한 한글 專用主義者들이야말로 韓國文化史를 二千數百餘年前으로 退化시키자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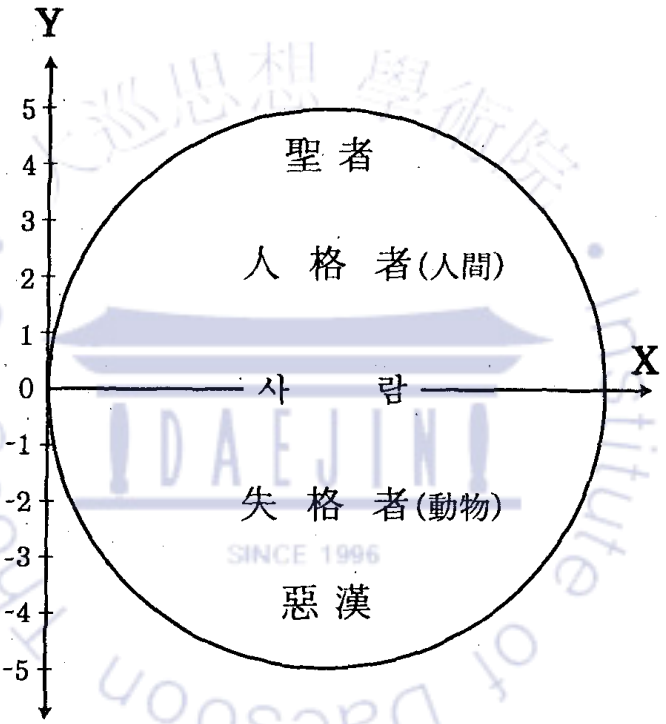
國語史的으로 볼 때 사람을 「사람」으로 足하다 하는 이는 人生을 動物的 사람으로 만족하고 萬物의 靈長으로의 次元에 올라가지 못한 上古時代人이라 하겠다.

이제 簡明하게 人格의 定義를 내릴 단계에 왔다.

人格은 人間으로서의 品位를 總稱함이다. 以上이다. 더 간략하게는 「人格은 人間으로의 品位」이다.

앞서 「人間論」이 長說되었으나, 「人間」이라는 槪念은 表意文字만이 語義를 內包할 수 있고 表音文字文化圈은 不可能한 槪念이다. 이제 圖式으로 알아본다.

人 格 圖



人間만이 人格者가 되는 것이요 「사람」은 人格 '0'位, 零段 無格者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尊嚴한 人權을 소유하였다고 한다면 도대체 「人權」이 무엇인가? 反問하지 않을 수 없다. 人生으로 태어났다는 事實 하나만으로 人權을 소유하였고 尊嚴하였다면 다시 무엇이 왜 尊嚴한가 다시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尊嚴」하다는 것이 根據없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事實만으로 尊嚴하다면 '無根한 尊嚴' '無內容한 尊嚴性'이므로 無價値한 尊嚴性을 가진 사람은 最貴할 이유없고 虛無價値界人으로써 人間 外의 萬物과 同格에 불과하다.

名士라고 하는 識者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事實만으로 尊嚴하다」는

言明을 강조하나 虛無價値論者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人生으로 태어났다는 事實만으로는 他動物과 同格者인 것이, 後天的으로 自力 他力의 敎育에 의하여 人間化 되어감으로써 人格이 型成되기 시작하고 尊嚴性이 싹튼다.

사람으로 태어난 者들이 人間化 敎育을 받지 않고도 尊嚴하다고 한다면 無人孤島에서 獨生하는 사람에게 尊嚴性이 自生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荒蕪地에서 五穀이 自生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荒蕪地를 開墾하여 沃土를 만들어 五穀을 生産하기까지 피땀을 흘려야 하는 農夫의 勞苦처럼, 自然상태의 「사람들」을 「人格化」 陶冶의 修鍊도 다를바 없다.

이렇게 人間化 人格向上作業이 쉬운 일이 아니고 肉體勞動 아닌 精神勞動의 試鍊을 거듭 지속해야 한다.

人生의 肉身 成長은 한계가 있어 中止하지만 人格이라는 人間性 向上은 生命이 있는 날까지는 中止하지 않고 成長하여 人格은 無限大하다.

人格向上이란 어떻게 나타나는가 具體的으로 言明하고 總論으로서의 緖論을 整理하기로 한다.

「人間化」라는 말은 「一身으로서의 나」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할 때 그것이 人間的으로 成長하는 것이다. 肉體는 두배 세배 성장할 수 없듯 體力作業도 二倍 三倍 以上 발휘하지 못하나 精神的으로는 自己 一身만 생각하던 사람이 가까운 한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고, 다음 또 한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精神的으로 成長하는 것이다.

動物界에는 種族保存本能으로 子母愛가 한때 작용하다 끝나지만, 人間의 精神活動은 知覺範圍를 확대하여 간다.

他在世界에 대한 知覺과 自我世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知覺 自覺의 世界를 확대하여 갈 때 人間的으로 크게 成長하여 간다하며 意識世界가 큰 人間을 大人이라 하고 偉人을 말한다.

일찍기 孟子는 人間으로 하여금 修養을 통해서 大人이 될 것을 다음과 같이 깨우쳐 주었다.

『公都子가 묻기를 사람은 모두 같은데 어떤 사람은 大人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小人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孟子말씀에 그 大體를 따르면 大人이 되고, 그 小體를 따르면 小人이 되는 것이다.
다시 묻기를 어떤 사람은 大體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小體를 따른다 하니 왜 그렇게 됩니까?
孟子 말씀에 小體는 귀와 눈과 같은 감각기관으로서 생각할 능력이 없이 대상인 물질에 가리워 지배를 받고 물질과 물질이 마주치는 대로 그에 끌려 들어간다.
그러나 大體는 사유기관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생각하면 얻어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를 못한다.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바이니, 먼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主體的 사유기관에 자리하면 感性기관이 지배할 수 없게된다.
이렇게 感性에 지배받지 않고 自主的으로 精神世界를 확대하여 가는 사람을 大人이라 한다.』[1]

孟子는 心理作用을 두 가지로 구별하여 하나는 感性知覺, 다음은 思惟作用으로 보았다. 感性知覺은 「耳目之官」이라 하고 思惟作用機官을 「心之官」이라고 한다. 「耳目之官」은 감각에 그칠 뿐이므로 「不思」하고 「心之官」은 사유작용을 하기 때문에 「思」한다고 한다. 「不思」하는 「耳目之官」은 肉體的 感覺機官을 통털어 대표로 지칭한 것이며, 이것은 그때마다 접촉하는 물질을 感知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小體」라 이르고, 「思」하는 「心之官」은 사유하는 精神作用 일체를 말한 것이며 사유능력을 自主的으로 발휘하는 영향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으므로 「大體」라 한다. 大體인 心이나 小體인 感性機官은 다같이 天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지만, 小體는 禽獸도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가진 것만으로는 사람으로서의 特權이라 할 수 없다. 人間으로서의 存在價値는 大體를 활동하여 精神世界를 얼마나 확충하여 가는가에 달려 있다.

肉體는 일정기간 성장하면 그치지만 精神活動은 생명이 있는 날까지 가능하며 有限한 人生으로 소망껏 偉大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음을 깨우쳐준 교훈이다.

---

1) 『公都子 問曰釣是人也, 或爲大人, 或爲小人. 孟子曰 從其大體爲大人, 從其小體爲小人. 曰釣是人也, 或從其大體, 或從其小體, 何也. 曰耳目之官 不思而蔽於物, 物交物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小者不能奪也. 此爲大人而已矣.』(孟子 : 告子 上)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小體의 요구에만 맹종하고 大體의 요구는 따르려 하지 않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大體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小體의 요구를 되도록 억제하는 人間들이 있다. 오늘날 「小人輩」와 「大人」의 호칭으로 人間을 분류 평가하는 관례는 孟子의 이 가르침에서 연유한다고 보며, 動物的 小人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感覺이 요구하는 物質的 욕망에 지배되지 말 것과 大人되기를 원한다면 感性知覺的 쾌락에 빠지지 말고 遠大한 思慮判斷으로 尊敬받을 처세를 설계하여 실천하는 生活을 영위할 것을 깨닫게 한다. 앞으로도 小人과 大人의 人間評價 基準論은 길이 유효할 것이며, 時間的으로 空間的으로 有限한 人生에게 그 제약에서 해방되게 하는 處方이 된다는 점, 人間의 삶을 質的으로 量的으로 擴大發展할 문호를 열어 주었다고 하겠다.

바로 大人이 大人格者를 뜻하며 人格者는 一身의 肉體的 感性知覺의 快樂에 지배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配慮하여 다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울 때는 同苦하여 어려움을 함께 克服하는 先導主役이 된다. 惠澤을 주는 範圍 人間들을 他人이라 생각하지 않고 自身의 分身으로 생각하게 되니 그 數가 많을수록 比例하여 大人은 커진다.

이렇게 人格者는 大人인 것이며 品位가 높고 큰 人間이기에 누구도 그를 尊敬하지 않을 수 없다.

筆者는 앞 人格圖에서 밝힌바 人類 모두가 人格者라면 매우 소망스러우나 그렇지 못한 것이 人類社會相인데 문제가 심각하다.

人格圖가 明示하듯 圓의 直徑線 以上만 人格者社會요, 以下는 反人格者社會 새로 命名하기를 「失格者」들의 社會라 하였다. 人格者 社會도 初級 人格者로부터 中級 人格者, 上級 人格者로 올라가서 그 분들이야말로 大人格者요 그분들이 聖者 聖人이라 하였다.

그러나 圓의 直徑線 以下의 「失格者」社會가 엄연히 있고 '0'以下로 내려갈수록 「失格度」가 커서 犯罪 또한 큰 强力犯이 되고 惡漢이 된다. 이들이 있는 것이 人類社會의 實相이다.

人格圖에서 말하듯 最上級 品位의 聖人이 極少數인 것처럼 最下級 惡漢類도 極少數라 보아야 하겠고, 一般人類社會는 아직 '人間'이라 불러줄 수 있

는 水準級 人格者가 못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

왜 그렇게 人格者가 못 된 '사람들'이 많을까?

그것은 이미 二千四百餘年 전에 孟子가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肉體的 欲求와 感性知覺에 유혹되어, 思慮깊은 反省과 賢明한 洞察로 未來를 설계 못하기 때문이다.

人間敎育과 修養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은 人生으로 태어났다면 于先 잘 먹고 잘 사는 衣食住문제를 해결하는데 主力한다. 그것이 해결되면 만족하지 않고 차츰 意慾이 왕성하게 되면 經濟的 발전에 執念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人間的 大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第一目的도 經濟이요 第二目的도 經濟라는 經濟的 動物化되어 가고 있다. 政治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의 基準도 얼마나 經濟를 成長시켰는가로 평가하게 되었다.

이미 英語로도 經濟만 추구하는 나라의 國民들은 'Economic animal'이라 世界的으로 指稱하면서 그것을 現代人類들은 지향하고 있다.

20世紀 后期로부터 人類史가 크게 발전하여 21世紀로부터는 劃期的 革命期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人間'史的으로 向上 開革하는 것인지, 人間以下로 經濟的 動物化가 肥大하여 가는지 未來史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經濟學이 추구하는 것은 財貨라고 하는 物質을 合理的으로 最大限 私有化하자는데 궁극적 目的이 있는 바, 物質을 目的하는 사람은 이미 人間自體보다 物質을 上位로 인식하고 있다는 嚴然한 사실로 해서 人間以下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움직이는 生物'이므로 '動物'이 아닐수 없다.

그러므로 政治人이 크게 政治를 잘 한다해서 經濟第一主義에 徹頭徹尾하여 經濟大國을 만들었다면 大政治人이라 無上의 讚辭를 받아야 할까?

論理的으로는 '經濟的 動物大國'을 건설한 '사람' 以上은 못된다.

政治는 사람을 動物 만드는 作業이 아니다. 國民 모두를 偉大한 人間을 만들어 '國威와 國位를 높이는 作業'이다. 個人마다 人格의 品位가 있듯 國家마다 上位國 中位國 下位國으로 品位가 있다. 요즘 國家의 水準은 先進國 后進國으로 等級을 구별하나 역시 經濟力의 貧富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國民들이 衣食住 生活能力이 없다면 人間으로서의 基礎能力이 문제가 되지만

당연히 그것은 확보하고, 나 以外의 他者(이웃)에 대한 共同體意識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國民들의 人格水準이요 基本民度라 하겠다.

國民 個人들의 人格문제는 道德과 倫理가 관여할 바 이지만 그 나라 國民들의 人格문제는 政治문제이다.

政治가 國民의 衣食住등 經濟문제만 일삼는 나라와 그 나라 政治人들은 低次元의 政治國家의 표본들이다.

人間生活道具를 풍요롭게 개발하면서 그것들을 善用하고, 目的者 國民들이 相互 尊敬하며 살아가는 人格國을 만드는 것이 참된 政治요 高級文化政治이다.

오늘날 先進 民主國家라고 하는 나라의 政治人들도 人格國家를 주장하면 BC時代 그리스의 플라톤의 哲人政治의 꿈을 꾼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것과는 不當千萬한 것은 플라톤의 哲人政治는 古代 王政時代를 벗어나지 못하여 一人哲人君主가 善政하기를 소망하지만 本人格政治는 民主國家의 主役될 자격은 '人格者 人間'이 된 者라야 民主國人이 될 수 있는 것이다. 人格者 못된 者는 '人間'도 못되는 것, 그 爲人이 國家의 主人이 된다면 動物의 王國이 된다는 論理이다.

眞正 民主主義가 高度 成長하자면 政治人은 물론 國民 모두 道德 水準이 높아야 한다. 道德性이 떨어지면서 政治技巧 權謀術數만 크게 발전하는 政治社會는 利己的 政治慾 爭奪場이 된다. 自己만이 職業的 政治家가 되어서 長期 國會議員이 되겠다는 것부터 民主政治에 逆行한다는 것을 모르고 온갖 政治技巧를 부리고 있는 것이 옳은 政治人이 못된 證據이다.

政治人으로 登場하면 與·野黨으로 분열되고 쌍방이 敵으로 투쟁하는 것을 本業으로 하고 있으니 거기에 政治道德을 찾을 수 있는가? 서로 不正을 들추어내어 규탄하는 政爭場에서 人格者를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이 政治發展하는 과정이라 안도를 갖어야 하는가?

이것은 절대로 政治發展이 아니라 政治野慾의 발전이요 끝없는 발전적 不勝戰이다.

참으로 政界에 進出한 政治家부터 人格 修鍊을 모범으로 해야 하겠다.

人格者가 되는 길 門戶를 열어야 하겠으니 거기가 敬이다.

本 論

Ⅰ. 敬의 古典的 考察

먼저 字意부터 알아본다.

① 「공경할 경」으로 不敢慢함을 뜻한다. 남을 尊敬함을 나타낸다.

② 「삼가할 경」으로 愼의 뜻이 있다. 조심하고 신중함을 뜻한다.

論語 子路篇에 「居處恭 執事敬」이 있다.

③ 「경계할 경」으로 警의 뜻이 있다.

詩經 大雅 常武에 「旣敬旣戒 惠此南國」이 있다.

④ 「공손할 경」으로 恭遜함 恭勤함 鄭重함의 뜻이 있다.

〔新書·道術〕에 「接遇肅正謂之敬」이라 하였다.

⑤ 「사례(謝禮) 경」으로 禮物로써 공경·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敬이기도 하다.

〔後漢書53·周燮傳〕에 「遺生送敬」이 있다.

緖論에서 「人格者」論이 길었다. 本論「敬」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敬」은 '삼가하고' '공경하고' 每事에 '경계하고 공손하다'는 뜻이 있는 바, '사람'으로 태어나서 動物的 人生으로 一生을 끝낸다면 삶의 보람이 없으므로 '人間' '人格者'가 되어야 하겠고, 人格者되는 일이 쉬웁지 않아서 「敬」字로 人生을 조심하고 삼가며 공손 경건 공경을 명심해야 할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古代社會에 있어서의 品位 높은 人格者는 '君子'라 한다. 그래서 孔子와 弟子 子路와 다음같은 問答이 있었다.

> 『子路가 君子는 어떤 사람(人間像)입니까 하고 물었다.
> 孔子 대답하기를 敬으로 몸을 陶冶하는 사람이다.』 2)

君子는 또한 儒家에서 숭상하는 理想的 道德人像이므로 君子가 되는 길은 '敬'으로 몸을 닦는 것이라는 言明에서 自我反省으로 內實을 기하는 德目임

2) 『子路問君子. 子曰修己以敬.』(論語 : 憲問)

이 확인되었을 것이다.

『司馬牛가 근심하며 말하기를 「남들은 모두 兄弟가 있는데 나만은 형제가 없어 고독합니다」고 하였다.
子夏가 말하기를 내 일찍이 선생님(孔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生死는 運命이요 富貴는 하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君子는 오로지 敬을 지켜 잃지 않고, 對人關係에서 恭敬으로 예의바르게 처세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즉 君子는 어찌 형제가 없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3]

不敬한 사람은 아무리 血緣 親族이 많고 친구 기타 인간관계가 다양하더라도 누구에게나 不遜하기 때문에 好感을 주지 못할 뿐아니라 혐오감을 주어 배반당한다. 그래서 敵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자신은 孤立 無援의 存在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同氣 兄弟 親族이나 벗들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고 원만하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親兄弟처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德性, 즉 敬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음 구절은 더욱 그것을 실감나게 예증해 주는 교훈이 될 것이다.

『子張이 묻기를 어떻게 處身해야 옳습니까?
孔子 말씀하시기를 말은(言辭·言語) 충성스럽고 신의를 지켜야 하며, 행동은 독실(篤實)하고 공경(恭敬)스럽게 하면 비록 野蠻人社會에 간다 하더라도 환영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그 말(言辭)이 眞實하지 못하고 行實이 오만불손(傲慢不遜)하면 자기 洞里 사람들로부터도 배반당하여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4]

참으로 이 敎訓은 이 社會生活하는 限 영원히 時效가 지속될 處世道라 할 것이다.

「言」이 忠信하자면 「僞」가 없어 一言 一句가 眞言이어야 한다. 僞言 虛言을 잘하는 사람은 對外處世하는데 他人들과 말할 때마다 어디까지 眞談이고 어디부터 속이는(欺瞞) 말인지 알 길이 없어 결국 모든 말을 不信할

3) 『司馬牛憂曰, 人皆有兄弟, 我獨亡. 子夏曰商聞之矣, 生死有命, 富貴在天. 君子敬而無失, 與人恭而有禮, 四海之內皆兄弟也. 君子何患乎無兄弟也.』(顔淵)
4) 『子張問行. 子曰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 行乎哉.』(衛靈公)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單 一回 僞言 虛言으로 남을 속인 사실이 없고 眞言만 하면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黃金처럼 不變하는 貴人이라 한다.

「行」이 篤敬해야 한다는 「篤」은 「도타울 독」이지만 誠心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敬」은 앞서 밝힌 대로 「그 마음 가짐이 조심스럽고 경건(敬虔)스러워야 함」의 뜻이다.

「操心스럽고 敬虔한」 「敬人」은 思慮깊어 前後 左右를 두루 살피므로써 他人들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고 有益한 일을 찾아 實踐한다. 바로 孟子가 言及한 大人의 標本人이므로 一人으로 百人 千人 萬人 以上의 몫을 할 大人間이요 큰 人格者에서 儒學的 人間像인 '君子'를 알게 된다.

여기 大人·大人格者·君子가 一脈相通을 알게 되고 모두 '敬'한 人間만이 可能한 大人間에의 길임을 알았다.

> 『君子는 敬으로 內心 정직하여지고 義로서 외모를 단정히 할 수 있으니 敬과 義가 확립되면 德은 건재하다.』 5)

筆者가 本論文 主題를 「人格 無限 內實 擴充化 德 敬의 硏究」라 定한 까닭도 여기 「敬以直內」四字에 큰 感銘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敬은 謙遜을 나타내는 德임에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品位를 언제나 事實 以下로 낮추는 消極的 德이 內的으로 곧은 主體意識을 확립시키는 積極的인 面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孔子가 말한 것처럼

> 『恭遜하기만 하고 禮로 節度있게 하지 않으면 피곤하다.』 6)

每事에 누구에게나 순종하기에 급급하노라면 자기의 뜻을 펴볼 겨를이 없을 것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몸둘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다.

敬은 결코 비굴한 奴隸道德이 아니다. 敬이 四方을 보살피는 까닭은 他者와 衝突이 없도록 함이요, 過去를 회고하는 까닭은 후회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요, 오지 않은 未來를 우려하는 것은 不幸한 날이 올 것을 防止하고 幸福을 설계하기 위해서다.

---

5)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周易 : 坤卦文言)
6) 『恭而無禮則勞』(論語 : 泰伯)

오직 깊고 높고 넓고 길게 생각하는 思慮作用으로서의 '敬'이 不實을 막는 것이다.

「讓步가 美德」이라 하여 '敬' 또한 언제나 양보를 일삼는다면 敗德의 德이 되고 만다. 長·廣·高·深·多로 大思하여 結論 내림으로써 양보해야 할 때 양보하고, 밀고 가야 할 때는 굳세게 밀고 가야 한다.

그것이 「義」이다.

이렇게 敬은 義와 兩立해야 하기 때문에 『敬義立而德不孤』라는 名訓이 있는 것이다.

敬으로 大思하여 內直하고 義와 兩立한 德人은 언제 어디서나 理想的 人格者像이 될 것이다.

敬이 義와 兩立하여 大德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禮와 合하는데 있다.

이미 '禮'論할 때와 위 글 一部 論할 때

> 『子曰恭而無禮則勞, 愼而無禮則葸, 勇而無禮則亂, 直而無禮則絞.』(論語 : 泰伯)

에서와 같이 禮에 벗어난 恭遜을 一身이 피곤할만큼 하면 奴隸道德이 되고, 삼가함이 지나쳐 無禮할 정도에 이르면 매사를 두려워서 하는 일이 없고, 勇敢無雙하다 해도 無禮할 경지에 이르면 亂暴에 빠지며, 直은 仁에 이르는 端緖라 할만큼 純朴性情으로 儒家에서 찬양하였으나 正直을 넘어서면 急切無禮하다.

참으로 道德 語義가 精密함에 깊은 心慮가 있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또 道德 槪念도 嚴正하게 사용해야 하므로 그 語彙 선택에 조심해야 하겠다. 여기 倫理 道德의 精神哲學界를 細心하게 표현하기에 「無意文字」로서의 表音文字는 限界를 깨닫고 「有意文字」로서의 表意文字 필요를 절실하게 요구된다하겠다.

「恭」의 경우 「공손할 공」「공순할 공」「공순(恭順)히 섬길 공」「받들 공(今予惟恭行天之罰)<書經>」이라는 뜻이다.

「恭遜」「恭順」으로 「恭」을 설명하는데 「恭」字를 再言하지 않을 수

없고 追加한 字는 「遜」「順」字로서 본뜻을 표현하고, 「받든다」(尊)는 뜻이 있어 모두 「謙遜」「順從」하여 自身을 낮추어 他人을 높일 때 쓰는 말이다.

「敬」을 「공경 경」字라 해서 「恭」字와 같은 字로 同一視해서는 不必要한 道德槪念을 중복하는 것밖에 않된다.

「敬」은 '敬'대로의 독특한 道德性이 있고 他字가 代行할 수 없는 精神世界를 알아야 한다.

孔子의 解明을 알아보자.

> 『禮는 敬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 어버이를 敬하면 그 아들이 기뻐하고, 그 兄을 敬하면 그 아우들이 기뻐하고, 그 임금을 敬하면 신하들이 기뻐하니, 한 사람을 敬하고 千萬의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 敬은 적으면서 많은 이를 기쁘게 하니 道德의 基本이라 이를 수 있다.』 7)

筆者 本經文 해석에서 「敬」을 우리나라말로 「공경」이라 해야 하겠지만 '공경'은 '恭敬'의 表記일 뿐, 해석이 아니요 檀君이래 우리나라말(國語)로 '공경'이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지를 못했다.

그만큼 漢字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倫理道德 意識이 貧弱해서 言語가 없었다.

그래서 「敬」의 道德槪念도 純國語로 옮겨 풀이가 不可能한 것이 사실이요 漢字 複合槪念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鮮明한 풀이가 못 되어 語彙의 궁색(窮塞)에 괴로울 때가 많다.

本文의 경우 이 때문에 「敬」을 '敬'이라 할 도리 밖에 없었다. 「敬」은 어떤 경우에 쓰여지고 그 道德機能은 어떠한가 살핀다.

> 『孝道를 교육하는 것은 자기 父母만을 공경하게 함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父母를 공경하게 함이요, 悌(兄弟間의 우애)를 교육하는 것은 자기 兄을 비롯하여 세상의 兄된 사람들을 모두 공경하게 함이요, 臣下된 道理를 교육하는 것은 世人의 임금된 사람을 공경하게 함이다.』 8)

---

7) 『禮者敬而已矣. 故敬其父則子悅, 敬其兄則弟悅, 敬其君則臣悅, 敬一人而千萬人悅. 敬者寡而悅自衆, 此之謂要道也.』(孝經:廣要道)

8) 『敎以孝, 所以敬天下之爲人父者也, 敎以悌, 所以敬天下之爲人兄者也, 敎以臣, 所以敬天下之爲人君者也.』(孝經:廣至德)

앞의 「禮者敬而已矣」 할 때의 '敬'은 總論的 '敬'으로서 尊敬·謙遜·恭遜·辭讓·良順등의 뜻이 종합된 敬德이다.

그리고 「敬父」의 敬은 親愛의 心情일 것이고, 「敬兄」의 敬은 友愛의 心情이요 「敬君」의 敬은 尊敬의 心志일 것이다.

이렇게 폭 넓은 心德인 敬이 禮의 本質이라 하였으니 孔孟의 敎 가운데 核心인 禮가 心德의 表現이라 하겠고 外的 行態로 만은 뜻이 없다.

心德, 그것이 人格의 內容이요 敬의 心事가 人格者의 水準을 그때마다 行爲化하고 있다.

孔孟哲學 즉 儒學의 頂上 大德인 「仁」을 修道하는 必須 終門이 「禮」임은 孔子의 敎育과정에서 드러나고, 가장 뚜렷한 證言이라 할 수 있는 것은 首弟子 顔淵의 問仁에 대한 答이 「克己復禮爲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禮」가 人間의 品位를 外的으로 標榜하는 道德行爲라 생각하기 쉬우나 다음 「問禮之本」의 答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 『林放이 禮의 根本을 묻자, 孔子 말씀하기를 크도다 그 물음이여! 禮는 사치스런 것보다는 차라리 儉素한 데 있고, 喪事時는 禮義節次를 잘 이행하는 것보다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데 있다.』 9)

禮의 本質은 古今을 막론하고 禮儀凡節을 잘 지킨다고 융성한 展示와 절차를 앞세우기 쉬우나, 안으로 誠心이 결여되었다면 虛禮虛飾에 불과하므로 儉素하더라도 眞情의 流露에 있다. 그 실례로 喪禮의 경우 직업적 祭官처럼 心情的 표현없이 절차에만 태연한 것보다 哀痛해 하는 心情에 禮의 本質이 깃들었다는 것이다.

禮는 「行爲之事」임에 틀림없으나 그 動機이자 原因은 心情이요 萬人의 同情이 外的 表現되는 것이다.

萬人이 是認함이요 同情하는 것을 이른바 「善」이라 한다. 특별히 他人에게 봉사한다던가 社會的으로 有益한 善行하는 것만 善이 아니라 社會 一般的으로 共認하는 바를 主張할 때 '善意'의 表明이라 하겠고 實踐할 때 '善行'이라 할 것이요, 社會人이 공통적으로 不認하고 普遍妥當性없이 자신만

9) 『林放問禮之本. 子曰大哉問, 禮與其奢也, 寧儉. 喪與其易也, 寧戚』 (論語:八佾)

옳다고 强辯 强行할 때 獨善 獨裁主義者라하여 누구도 同情하지 않고 '惡意' '惡行者'라 한다.

孟子는 人間이면 누구나 善하다는 性善說을 四端으로 立證하였다.

> 『孟子 말씀에 사람은 누구나 측은한 마음이 있고, 수치심이 있으며, 공경심이 있고, 是非를 가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측은한 마음은 仁이요, 수치심은 義이며, 공경심은 禮요, 是非를 가리는 마음은 智이다.』 10)

筆者 이 論文에서 孟子의 性善說을 再論하자는 것이 아니라 「善」이 무엇인가 共說을 찾고 主題「敬」과의 관계를 찾자는 것이다.

불쌍하고 딱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자신의 잘못된 것이 공개되면 부끄럽고, 남의 잘못을 보면 忿慨心이 나오고, 老弱者가 苦役하면 도와주고 싶으며, 他人間에 不當한 紛爭을 하는 것을 볼 때 바른 판단으로 바로잡아 주고 싶은 것이 人之常情이 아닐 수 없다.

이 常情이 善心의 端緖임에 틀림없다면 恭敬心 一括해서 敬心은 善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敬心의 外的 표현으로서의 禮行은 善行이요, '仁' 바로 次德인 禮는 大德이다. 禮가 大德인 것은 '敬'으로 核心하였기 때문에

> 『윗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萬百姓을 다스리는 데는 禮보다 더 한 것이 없는 바, 禮는 敬 그것일 따름이다.』 11)

『恭敬之心 禮也』(孟子:告子上)와 같이 敬은 個人的으로 갖춰야 할 禮의 本質이자 國家를 平和롭게 다스리는 政治의 王道가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敬'은 '禮'와 同格德임을 느끼게하고 萬가지 行實이 規範에 符合하여 禮行이라 하더라도 '敬心'에서 우러나와야 온갖 德의 終門을 통과해서는 '仁'의 境地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最上德 '仁' 바로 次德'禮'와 表裏關係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敬은 主로 心德이므로 內德이라 하겠고 禮는 行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外德이라 하겠다. '敬''禮'가 內外附合되고서야 결함없는 仁行이 될 것이다.

---

10) 『孟子曰 ---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惡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 仁也. 羞惡之心, 義也. 恭敬之心, 禮也. 是非之心, 智也. ---』(孟子:告子上)

11) 『安上治民, 莫善於禮. 禮者敬而已矣』(孝經:廣要道)

敬이 언제나 높은 수준의 行爲에만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基本 德으로부터 全德까지 道德되려는 必須條件이니 孝와 敬의 관계를 예로 든다

> 『子游가 孝에 관해서 물었다. 孔子 말씀하기를 요즘의 孝子라고 하는 사람들은 父母에게 奉養만을 잘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집에서 기르는 개나 말에게도 잘 養育하는 바, 敬이 없다면 짐승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12)

敬이 결여된 奉養의 孝는 父母를 家畜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警告한 孔子의 교훈으로, 敬은 모든 禮儀 道德의 本質임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禮'는 '敬'일 따름이라 하였음으로 禮가 없는 無禮한 者 無禮漢은 古今 野蠻人과 同格이고, 敬이 없는 不敬者는 어디를 가나 傲慢 不遜하여 관계하는 모든 이에게 不快하고 嫌惡感을 주어 人類의 敵이 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禮義바르고 敬虔한 人間社會는 道德이 소망하는 社會일 것이다.

Ⅱ. 退溪의 敬思想

韓國 儒學의 巨星이라면 退溪와 栗谷 兩 先生을 꼽겠고 특히 두 분의 理·氣 性理學說은 朱子 程子를 뒤지지 않을 獨步의 境을 개척했다고 할 것이다.

本 論文에서 방대한 退溪先生의 理氣論을 言及할 여지가 없어 注力한 敬의 思想 一部를 소개하기로 한다.

退溪를 상징하는 主된 思想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敬」字로 요약할 수 있으리만큼 그의 全思想體系는 '居敬 窮理'하는 程朱哲學의 正統性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生涯가 敬의 實踐課程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敬의 思想을 요약하고 그것이 現代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 가를 살피기로 한다.

---

12) 『子遊問孝. 子曰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何以別乎.』(論語: 爲政)

『靜할 때 엄숙한 것은 敬의 體요, 動할 때 齊整한 것은 敬의 用이다.』[13]

그러면 靜과 動이란 어떤 상태일까?

『靜하면 고요하니(性情이) 아직 發하지 않은 상태요, 動하면 느끼니(性情이) 이미 發한 상태이다.』[14]

다시 '靜하면 寂'한 '未發'상태와 '動하면 感'하는 '已發'상태를 알아 본다.

『事物에 接하기 전 不起·不滅하는 때라든가 虛靈한 곳, 밝고 어둡지 않다든가, 이른바 喜怒哀樂을 아직 느끼지 못한 상태, 思慮言行이 아직 동요되지 않은 상태가 모두 고요히 靜한 未發에 속한다. 이른바 방금 생각할 때, 思索할 때 格物致知를 궁리할 때, 思慮가 紛糾할 때, 사물을 응수할 때라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感通하여 動하는 것에 속하니 소위 '已發'이라 한다. ---
未發하면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운 것이 되고, 已發하면 體驗과 省察 精察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이른바 불러 깨우친다든가 끌어 일으켜 비추어 살피는 공부하는 未發과 已發을 通貫하여 間斷을 不許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敬이라 한다』[15]

이것을 보면 敬에도 靜과 動이 있는 바, 靜은 우리의 心性이 외부의 事物과 접촉하기 전의 고요한 상태로서 그 때는 自重하여 嚴肅하고 어떤 사태가 다가올 것인가 두려운 마음과 삼가는 마음으로 對備하는 마음가짐이 靜的 敬이요 敬의 體(本體)이고, 動은 일단 外物이나 사태에 부닥쳤을 때 適應하는 思慮, 熟考, 判斷作用으로 질서정연하며 每事에 適中을 期하는 心理活動이 動的 敬이요, 敬의 用(作用)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退溪를 통해서 종합적인 敬의 總意를 알아본다. 그것은 退溪가 宣祖께 올린 上書文인 '進聖學十圖箚'에서 다음과 같이 敬을 설명하였다.

---

13) 『靜而嚴肅, 敬之體也. 動而齊整, 敬之用也』(退溪集:答李宏仲)
14) 『靜則寂, 而未發之謂也. 動則感, 而已發之謂也』(退溪集:答黃仲擧)
15) 「故未接物前, 不起不滅之時, 所謂虛靈之地, 炯然不昧, 所謂喜怒哀樂之未感, 思慮云爲之擾, 皆屬之寂然而靜, 卽所謂未發也. 所謂纔思時, 所謂思索時, 所謂窮格時, 所謂思慮紛糾時, 所謂事物應酬時, 皆屬之感通而動, 卽所謂已發也. --- 未發則爲戒愼恐懼之地, 已發則爲體察精察之時, 而所謂喚醒與是起照管之巧, 則通貫乎未發之間, 而不容間斷者, 卽所謂敬也.」(退溪集:答黃仲擧)

『일찍이 孟子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機官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 생각하면 道理를 깨달아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道理를 깨달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箕子는 武王을 위하여 洪範을 진술할 때에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와야 하며, 지혜는 聖人을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마음은 方寸(四方 一尺의 좁은 면적)에 갖추어 있으면서 지극히 虛靈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이치는 그림과 그 설명에 분명히 그리고 진실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극히 虛靈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하고 진실한 이치를 구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생각하면 道理를 깨닫게 되고, 지혜는 聖人을 만든다고 하는 것들이 어찌하여 오늘날이라고 실현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비록 虛靈한 것이라 하더라도 主宰하는 바가 없다면 어떤 일이 눈앞에 다가와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치가 비록 분명하고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항상 눈앞에 있을 지라도 그 상황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에만 의존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 孔子는 「배우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워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와진다」고 하였습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 습득하여 진실되게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성인이 되기 위하여 하는 공부는 마음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두어져서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까닭에 반드시 깊이 생각하여야 아주 미묘한 것에 까지 통달하여지는 것이고, 어떤 일을 습득하지 못하면 위태로와져서 안정되지 못한 까닭에 반드시 그 일을 잘 배워서 충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깊이 생각하고 충실하게 배운다는 것은 상호 계발하게되어 서로가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聖明께서는 이와 같은 이치를 깊이 통촉하시고 모름지기 먼저 뜻을 세우시어 「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면 나도 舜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여 배우고 생각하는 두가지 공부에 분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敬을 계속 지키는 것은 또한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고, 動과 靜은 일관된 것이며 마음과 행동을 合一하고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을 한결같이 하는 道입니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삼가고 엄숙하며, 고요한 가운데에 자기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며, 배우며 질문하고 생각하며 분별하는 동안에 이론을 궁구해야 할 것이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태도가 더욱 엄숙하고 더욱 恭敬하여야 할 것이며, 숨어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곳과 홀로 있는 곳에서 성찰하는 것이 더욱 精密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6)

---

16) 「…竊嘗聞之, 孟子之言, 曰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箕子之爲武王陳洪範也, 又曰思睿, 睿作聖. 夫心具於方寸, 而至虛至靈. 理著於圖書, 而至顯至實. 以至虛至靈之心, 求至顯至實之理, 宜無有不得者. 則思而得之, 睿而作聖, 豈不足以有徵於今日乎. 然而心之虛靈, 若無以主宰, 則事當前而不思, 理之顯實, 若無以照管,

孟子가 '大體'라고 한 '思'는 깊고 높고 넓은 思慮로 每事를 조심스럽게 살펴 決行하는 마음씨·마음 가짐이요 그것이 '敬'이다.

箕子가 '思曰睿'라 한 '睿'는 '슬기롭다''밝다'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敬行하면 그것이 聖人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聖人 孔子가 凡人을 교육하기를 책만 보고 또 남의 말만 따르는 사람은 곧 「學而不思則罔」이라 했으니 어둡고 답답한 사람이요, 自己 혼자 생각하기를 일삼고 學問을 멀리하면 獨斷 獨善者 즉 「思而不學則殆」이라 하였으니 매우 위험한 사람이 되어 모두 '敬'과 거리가 멀다 하였다.

그러므로 깊히 생각하고 넓게 배워 옳다고 판단되면 實踐에 힘쓰는 사람이 참된 修道하는 學者요, 敬이 거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退溪가 숭배한 朱子의 敬에 대한 견해를 알아본다.

> 『敬은 마음의 主宰요 萬事의 根本이다. ---- 대체로 이 마음(敬)이 확립되어 格物하고 致知하여 만물의 理致를 다하면 그것이 이른바 德性을 높이고 學問하는 길이며, 이로 말미암아 뜻이 성실하고 마음이 바르게 되어 修身하게 되면, 이른바 먼저 큰 것을 세움으로써 작은 것은 빼앗지 못하게 되어 내 몸을 닦아 萬百姓을 편안하게 함이 된다.
> 독실하고 공경하여 天下를 태평하게 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하루라도 敬을 떠나서 되어본 적이 없다. 그러한 까닭에 敬 한 字야말로 聖學의 始終一貫된 核心的 德이 아니겠는가?』 17)

이와 같이 敬 한 字를 잘 지키면 나 한 몸이 聖人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지키면 人類平和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退溪가 敬을 특별히 尊敬한 것은 그 人間됨이 敬虔하였기 때문이요 그 品位 人格이 남달리 高尙하였음을 입증함이라 하겠다. 今年이 西紀 2000年이

則目常接而不見. 此又因圖致思之不可忽焉者然也. 抑又聞之, 孔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學也者, 習其事而眞踐履之謂之也. 蓋聖門之學, 不求諸心, 則昏而無得故, 必思以通其微, 不習其事, 則危而不安故, 必學以踐其實. 思與學交相發而互相益也. 伏願, 聖明深燭此理, 先須立志, 以爲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奮然用力於二者之功. 而持敬者, 又所以兼思學, 貫動靜, 合內外, 一顯微之道也. 其爲之之法, 必也存此心於齋莊靜一之中, 窮此理於學問思辨之際, 不睹不聞之前, 所以戒懼者, 愈嚴愈敬, 隱微幽獨之處, 所以省察者愈精愈密….』(進聖學十圖箚)

17) 『敬者一心主宰, 而萬事之本根也. -- 蓋此心旣立, 由是格物致知, 以盡事理之理, 則所謂尊德性, 而道問學. 由是誠意正心以修其身, 則所謂先立其大者, 而小者不能奪. 由是齊家治國以及乎天下,則所謂修己以安百姓. 恭篤而天下平, 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大學或問)

므로 退溪가 탄생한지 꼭 500年前이요 1501年에서 1570年까지 살다 간 분이지만, 바로 우리 世代까지 살다 간 분 같이 親近하게 느껴지는 것은 敬의 哲學으로 一生을 實踐하였기 때문이요, '敬'이 곧 萬人에게 多情多感한 溫德이기에 時間과 空間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 退溪를 통해서 敬의 處世哲學으로 살아간다면 無名 聖者답게 自尊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Ⅲ. 敬의 現代的 考察

1. 現代 德目으로서의 敬

現代人에게 가장 대표적 道德目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 사랑 둘째 奉仕 셋째 博愛라고 할 것이다.

그 序位는 意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넓리 숭상되고 있으면서 모두 뜻대로 實行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所望스런 德目임에 틀림없다면 現行 道德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즉 當爲德과 實踐德의 차이 만큼의 거리가 있다.

當爲와 現行 사이에는 線이 있어서 그 線은 곧 넘을 수도 있고 넘어야 하지만 길이 넘지 못하고 있는 線일 수도 있다. 그래서 兩者는 合一되지 못한 相對槪念의 상태에 있다.

'사랑'을 말하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現行中에 있는 現存愛의 경우 所望愛라 할 수 없다.

種族保存愛 陰陽愛등과 같은 現存愛는 道德에서 제외하기로 하면 이러한 本能과 관계없이 所望스런 사랑은 道德이 바라는 바인 바 東西 古今 未來까지 추구하면서 線을 남긴다.

道德愛는 世態가 打算的이고 冷情하여 가면서 멀어져 간다.

그래서 宗敎人들은 믿음으로 사랑과 接近하려하고 人道主義者들은 道德으로 實踐하려 노력하나 現代에 오면서 사랑은 찾는 소리와 反比例하는 것 같다.

다음 奉仕의 경우 그 槪念 語義부터 알아 본다.

(1) 남의 뜻을 받들어 섬김
(2) 남을 위하여 일함
(3)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함
(4) 商人이 손님에게 헐값으로 물건을 팖.
(5) 남을 친절히 대접함.
(綜合 國語辭典 語文閣)

奉仕의 主된 뜻은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 함」이다. 主客 兩者 중에서 客이 主人格이고, 主는 客人格이 된 主客顚倒德目이다.

'奉仕'의 특색은 過去로 소급할수록 道德的 價値意識으로 크게 요청되지 않던 것이 近代 現代로 오면서 社會意識이 고조되자 社會要請德目으로 크게 숭상되고 있다.

이러한 社會變遷에 따른 要請으로 奉仕가 요구되었지만 또 중요한 要因은 西敎로 일반화된 基督敎가 世界化되면서 「나보다 남을 아끼고 사랑하라」 精神이 높이 상승하게 되었다. 「한 알의 밀(小麥)」의 精神 즉 밀이 땅에 들어가 썩어야 새 生命이 千톨 萬톨로 번식시킨다는 敎理가 大普及되었다.

이 精神이 「犧牲」精神으로 확대되어 최고로 讚美되었다. 이렇게 되면 한 宗敎의 敎理인지 道德의 頂上에 이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음 博愛精神을 알아본다.

'사랑'이 高尙하고 보편타당한 德目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博愛는 最高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最高德 級에 해당할 것이다.

三聖 孔子의 仁, 釋迦牟尼의 慈悲, 예수의 博愛는 同格의 最高級 德이라는데 序位를 論할 여지가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孔子는 敎育者요 大哲學者이나, 釋迦牟尼와 예수는 宗敎를 開發한 敎祖라는 점, 그래서 孔子의 目的德은 萬人 누구에게나 實踐 可能한 德目이요 두 宗敎祖의 目的德은 누구에게나 實踐 可能性이 멀다는 점이다.

佛敎의 慈悲는 現象界를 生老病死로 避치 못할 苦海라 보느냐 않보느냐 宗敎的 觀點에 속한 自由이다.

基督敎의 博愛의 경우 全人類를 사랑하라는 所望, 最高愛로서 頂上德이라 하겠으나 역시 宗敎德目이기에 永遠히 人生界에서는 實現 不可能한 所望愛일 뿐이다. 여기에 哲學이라는 科學中科學이요 敎育學的 德目인 儒學의 諸

德과 博愛를 비교하기로 한다.

孔子時代에도 博愛思想家가 있었기에 다음과 같은 問答이 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怨恨이 맺힌 사람에게 厚德으로 갚으면 어떻겠습니까?」라 하였다.
孔子 말씀하기를 「恩德을 입은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갚겠는가?」反問하며 「곧은 마음(直)으로 怨恨 맺힌 者에게 갚을 것이요. 恩德받은 사람에게 恩德으로 갚을 것이다.」라고 하셨다.』[18]

「怨讐까지 사랑하라」는 博愛主義者가 예수 500年前 孔子때에 이미 있었고 단호히 배격되었음을 알겠다.

孟子 또한 西歐式 博愛主義를 强力히 배격하였다. B.C 5世紀 東洋 博愛主義 思想家라면 「兼愛主義者」인 墨子(翟)를 대표로 들 수 있겠다. 알아본다.

『楊氏는 爲我를 주장하였으니 그것은 임금이 없는 것이요, 墨氏는 兼愛를 주장하였으니 그것은 아비가 없는 것이다. 아비가 없고 임금이 없다면 그것은 禽獸이다. 公明儀는 「푸주간에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 살찐말이 있으면서 백성은 굶주리는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楊朱 墨翟의 道가 사라지지 않으면 孔子의 道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邪說이 백성들을 속여 仁義를 꼭 막히게 하는 것이다. 仁義가 꼭 막혀버리면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 먹게 하다가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옛 聖人의 道를 지키고, 楊朱 墨翟을 막으며 음탕한 말을 몰아내어 邪說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에 작용하면 하는 일에 害를 끼치고 그것이 하는 일에 작용하면 政治를 害롭게 한다. 그러므로 聖人이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의 이 말은 고치지 못할 것이다.』[19]

예수敎의 博愛思想이나 墨子의 「나」와 「너」의 구별없이 「兼愛」하라는 가르침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좋은 敎訓은 될 지 모르나 누구

18) 『或曰 以德報怨何如. 子曰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論語:憲問)
19) 『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公明儀曰, 庖有肥肉, 廐有肥馬, 民有饑色, 野有餓孚, 此率獸而食人也. 楊墨之道不息, 孔子之道不著, 是邪說誣民, 充塞仁義也. 仁義充塞 則率獸食人, 人將相食. 吾爲此懼, 閑先聖之道, 距楊墨, 放淫辭, 邪說者不得作. 作於其心, 害於其事, 作於其事, 害於其政, 聖人復起, 不易吾言矣.』(孟子:滕文公下)

에게도 合理的으로 實效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르침이다. 그래서 孟子도 墨子의 「兼愛」는 「無父說」이니 人間을 禽獸로 만드는 邪說이라 痛駁하며 「率禽獸人」(짐승으로 하여금 사람을 잡아먹게함) 「人將相食」(장차 사람끼리 서로 잡아 먹음)이라 極言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孔子의 「仁」이나 「愛人」 思想은 客觀的 요청이나 社會的 필요에 의해서 구성된 功利德目이 아니다. 人間性 자체에 內在한 道德的 가능성 또는 素地, 潛在性을 自覺시키고 自律的으로 啓發하도록 方法과 順序를 명시한 科學的 處方이요 德目인 점이 墨子의 兼愛說이나 基督敎의 博愛思想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이 点 武內義雄氏도 儒家의 仁은 自性을 內省하여 純粹한 心性속에서 道德性을 찾는데 反하여 墨家는 功利的으로 보고 相利로서 兼愛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다르다고 하였다.[20]

墨子의 兼愛說 또는 相愛이거나 基督敎의 博愛, 現代 西歐의 博愛思想이던 문제는 實踐可能性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는바, 地上 人類가 모두 聖者가 되지 않았다면 不可能하다는 사실이다. 일찍이 孔子는 이렇게 말하였다.

> 『子路가 君子는 어떤 사람입니까?
> 孔子말씀하기를 「내 몸을 修養하여 언제나 敬虔해야 한다.」고 하니 「그만하면 되겠습니까」하니 「내 몸을 修養하여 百姓까지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하니 「그만하면 되겠습니까?」하니 「내 몸을 修養하여 百姓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바, 그렇게 「修己 安百姓」하는 일은 堯舜 같은 聖君도 오히려 그렇지 못함을 心傷하였느니라.」』[21]

이렇게 四海同胞主義 博愛思想은 實踐德目이 아니라 宗敎的 所望이라 할 것이다.

孔子도 高次元의 人格者인 君子되는 길은 '敬'을 항시 조심스럽게 實踐하는 데 있다 하였으므로, 現代人도 人格者되기를 소망한다면 恭敬스런 人間·敬虔한 人間된다면 可能하다.

그 '敬'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 現代人에게도 實感나는 '敬''敬人'은

---

20) 武內義雄 著 : 支那思想史, 43-44面 參照

21) 『子路問君子. 子曰修己以敬.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人.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論語:憲問)

어떤 人間인가 아는 方法으로 反證法으로 이해할가 한다.

'敬'의 反對語는 '不敬'인바, 어떤 사람이 不敬한 者일까?

그것은 傲慢不遜·驕慢·獨善·獨斷·蠻勇등이라 하겠다.

傲慢不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은 자기만이 옳고 남을 理解하려 하지 않으며 혼자 높은체 하는 사람이 특색 있다.

그래서 이 類型의 사람들은 唯我獨尊者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獨善者가 되고 이들이 政界에 진출하면 英雄心理가 뛰어나 政治慾이 强하고 할 수 있는 限 獨裁者가 된다.

凡人의 身分으로도 驕慢한 者는 眼下無人格으로 사람들을 낮춰보는 下視習性이 있다. 참으로 人尊時代에 逆行하는 사람으로서 反社會的 人生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不敬人이 現代에 오면서 더욱 增加하는 경향이다.

靑少年들은 年上者를 공경할 줄 모르고, 同年層間에는 각자 서로 自尊心이 강해서 사양하는 美德은 찾을 수 없어 對立이 날카롭다.

時代가 변천하면서 人間社會가 非情化하는 것이 뚜렷한바 機械발전속도가 加速度化함인지 사람도 機械人生時代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理由있는 事實은 世界的으로 民主主義가 定着되면서 人生觀이 크게 바뀌어 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民主時代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나라 民主市民이 民主主義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크나큰 權益은 自由와 平等을 장악하였다는 자부심이다.

과거 君主主義나 帝國主義體制는 全體主義를 基底로 했었다면 自由民主主義는 個人主義를 基底로 하기 때문에 또 個人主義를 利己主義로 잘못알고 있는 市民意識은 自由 곧 自己中心恣行이라 생각하고, 平等은 社會的 存在로 지켜야 할 位階秩序까지 초월한 平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自由와 平等意識化된 民主市民은 人權意識이 自尊心 곧 自慢心으로 알게되고 自慢心이 獨善心을 길러주게 되었다.

여기 어떻게 恭敬心 敬虔心이 싹틀 餘地가 있겠는가?

民主主義가 이렇게 잘못 成長되어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歐美 先進國家 역시 예외 없이 自由平等부터 옳게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筆者는 博士學位 論文에서 自由와 平等을 圖式으로 '十·一' 自由平等으로 분석 明示하여 現下 人類가 개발하여 成長하고 있는 民主主義는 '一'自由·'一'平等主義로 下降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眞正한 民主主義는 '十'自由·平等主義로 上昇 成長해야 할 것이요 그것을 質量民主主義라 命名하였다.

'質'이라 함은 참된 民主國家의 主役이 될 수 있는 資格을 취득함을 의미하고 그 資格은 道德性인 것이다.

道德의 項目은 이에 일일이 열거할 성질이 아니어서 생략하겠으나 本論文의 主題가 '敬'이므로 民主主義와 '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야 하겠다.

民主主義가 人間의 尊嚴性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能力껏 幸福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思想이며 政治體制라면 基本이 主體者 個個人이 尊嚴性을 확보하는 일이다. 尊嚴性은 곧 人格을 道德으로 쌓아 높히는 데 있다.

本論文 主題名 그대로 '敬'으로 自重他重하여 人間 모두를 輕視하지 말고 所重하게 보고 대접하는 習性을 길러야 한다. 經濟第一主義時代라 해서 人權 上位에 物權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구조가 깔려있다면 人尊意識은 소멸된다.

千萬金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人權이라는 所信이 뚜렷해야 尊敬心이 나온다.

民主主義가 人尊主義라면 마땅히 '敬'을 民主道德律 第一條로 民主人間教育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民主國民 資格을 취득하여 有資格 民主國家로 成長하여 갈 것이다.

2. 社會人과 敬

社會라 하면 男女老少人이 共生하는 場이라 하겠다. 적게는 몇 戶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여 地域社會 國家社會 人類社會로 확대되나, 구체적으로 社會의 實感은 國家社會일 것이며 人類社會는 地球村이 한 마을처럼

가까히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먼 社會이다.

歷史라고 하는 時間條件과 領土라고 하는 空間條件을 같이하고 있는 國家社會人들은 同苦同樂하는 運命共同體이므로 넓게는 家族처럼 和睦하게 살아간다면 國家를 理想社會로 실현하여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各者 自己利益만 추구하기 專念하고 他人을 배려할 마음의 여념이 없어 非情한 利己主義者들의 生存競爭場으로 社會生活을 하여 간다면 비록 經濟力은 높아갈 지라도 非情한 生存鬪士들의 끝없는 無聲戰爭場이 될 것이다.

經濟第一主義를 指向하는 現代社會가 바로 이 모습인 바, 利益 利權 爭鬪戰은 새로운 戰爭이므로, 戰爭을 원하는가 平和를 원하는가 선택의 自由에 위임되었다.

利益戰爭時代의 現代 이후의 모습은 社會人들이 共生 相生하려 하지 않고 獨生하려는 執念이어서 人間이 人間을 아끼고 尊重하려는 性向이 없어진다.

人間이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各者 自己를 아끼고 존중하며 他人도 아끼고 존중해야 相尊하여 人尊社會가 된다. 이처럼 人間 相互가 相尊相愛한다는 것은 人尊史의 大發展인 것이며 實質的 人間史의 正路를 前進함이다.

自尊 他尊하는 그 마음이 '敬'인바 인류의 歷史가 實質的으로 發展하는가 后退할 것인가, 그것은 自尊 他尊하는 '敬'을 그 時代人 그 社會人의 水準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不敬人이 많은 時代社會라면 物質이 아무리 풍부하고 발전했다 하더라도 野蠻社會라 하겠고, 서로 尊重하는 人尊社會라면 高度人間社會라 하겠다.

'敬'과 멀어가는 社會는 物質萬能하더라도 人尊과 逆行하므로 眞歷史發展이 아님을 人類가 覺醒해야 하겠다.

自重自愛할 줄만 알고 他人을 아끼고 尊重할 줄 모르는 者는 獨善者여서 反敬者에 속하므로 社會生活에 유익하지 못하다.

自己가 獨尊의 위치에 올라섰다 해도 敬하지 못하고 傲慢하면 社會人들에게 얼마나 不快하고 人權을 모독하여 自尊心을 傷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實例를 들겠다.

1980年代 初 大統領이라는 사람이 長官들에게 任命狀을 수여할 때 또 國務總理에게 任命狀을 수여할 때, 한 손으로 꼿꼿하게 서서 주면 받는 이는 허리를 굽히고 목을 숙여 황송한 듯 두 손으로 받던 모습, 참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憤怒心이 터져나오게함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광경을 보던 초등학교 어린이가 「저걸 봐요! 대통령이 한 손으로 장관에게 상장(任命狀)을 주네요!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두 손으로 상장을 주시는데---」하던 말을 잊을 수 없다.

明白히 初等學童보다 無禮하고 無識한 大統領이라 糾彈하지 않을 수 없다.

君主政治體制下의 王도 臣下에게 두 손으로 敎旨를 내릴 것이다. 그것이 君主된 者의 基本 禮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不敬하고 無禮한 大統領이나 首相은 世界 先進國이라면 보기 어려울 것이다. 外國 大使가 新任할 때 그 나라 大統領으로부터 信任狀을 받을 경우 또 그렇게 한 손으로 下達하는 行態 어떠했으며 東方禮儀之國의 禮는 이런 것일까? 韓國의 國際品位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 사람의 不敬者가 地域社會에 있으면 그 小社會의 人間關係를 紊亂케 하는 問題人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不敬人은 手下人들을 酷使하고 盲從케 하는 反民主指導者가 되고, 國際社會에서는 國位를 下落시키며 人類社會의 平和增進에 조그만 도움도 주지 못하는 后進國의 代表者로 지목될 것이다.

敬은 이렇게 單位社會인 家庭에서부터 國際人類社會까지 平和케 하는 永遠한 人尊哲學이다.

3. 學生과 敬

'學生'이라는 槪念을 좁게 公敎育機關인 初等·中等·高等·大學校에서 修學中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규정한다면 간단하지만, 「學問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굳이 學校敎育을 받는 사람만이라 할 수 없고, 學問에 뜻이 있어 時間 空間의 제한 없이 學究에 專念하는 이는 '學生'이라 하겠다. 더 넓혀서 「學生은 배우는 사람 모두이다.」하면 學問이라는 專攻分野의 벽이

없어져 모든 分野 무엇이든 배우겠다는 사람은 學生이라 하겠다.

本項 '學生'論은 廣意의 學生論임을 前提한다.

먼저 「人生은 學生이다」라는 命題부터 내세운다. 學生은 배우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해당한다고 하였고 高等動物이자 萬物의 靈長인 人生이라면 知能이 발달할수록 더욱 알고자 하는 소망이 커져서 學生化 活動이 擴大될 것이기에 그런 사람이 正常的 人生이요 따라서 「正常的 人生은 學生」이라 하였다.

그러나 人生으로 태어나 高等動物도 萬物의 靈長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끝없는 知的 所望이 없고, 衣食生活에 만족하는 사람들이기에 '動物的 사람'일 것이요 '學生 人生'圈에서 除外된다.

'學生 人生觀'에서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은 배워야 할 對象이 主體와 客體 두 分野가 있는 바, 主體對象은 人生인 '나'는 無知 不足한 것 뿐이므로 끝없이 배워야 하겠다는 謙遜(敬)心으로 自身을 內實 擴充化하면서 成長한다는 点이요, 客體對象은 바로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을 배움으로써 나의 外界가 얼마나 넓고 큰가 알게되고 배울수록 不足한 自身에게 謙遜(敬)하여 無限大한 外界에 一步一步 前進하여 我界로 擴大한다는 点이다. 이와같이 內界와 外界를 개척하는 것이 배움의 길 즉 學生의 길을 正常으로 걸어감이다.

緖論 人格圖에서 밝힌 바와같이 人生은 圓의 直徑線 즉 '0'線에 出生하여 上向 前進할 때 그것이 敎育으로 人間이 偉大하여 지는 것이다. 敎育하지 않으면 '0'線만 延長하던지 下向할 可能性이 높아 動物的 人生(사람)에 自足하거나 欲의 奴隸로 惡漢이 될 것이다.

「人生은 敎育的 動物이다」라 할 때 內界 外界 개척하는 敎育을 뜻하는 바, 어느 한 쪽이 기울지 말아야 하는 것을, 人生學生들은 敎育均衡을 잃고 主로 外界 개척에 注力하는 경향은 飮酒로 高速走行하는 車와 같다 하겠다.

人生은 모두가 誕生할 때는 '0'線上에 태어나 成長하면서 '+'1 또는 '-'1을 택하여 가는 것이 實相이므로, '-'1 以下로 墮落하지 않도록 깨우치는 것이 人間敎育인 것이다.

對外世界를 1, 2, 3 --- 단계 알게되는 것도 向外敎育이지만 向內 人性陶冶

敎育이야말로 貴重한 敎育인 것이다.

앞으로 千年 萬年이후도 이 事實은 不變하여, 歷史가 아무리 발전해도 '0' 線上에 動物로 出生 一步를 시작하므로 人間化敎育은 必然 必須科目이어야 한다. 이것을 敎育하는 敎育者나 받는 被敎育者인 各階層 學生들은 「人生은 動物이요 모든 動物과 同等하게 出發한다.」는 嚴然한 事實을 깨닫지 못하고, 「人生으로 탄생되었다는 事實만으로 尊嚴하다」는 착각에서 人間되려는 修鍊과 敎育을 멀리하고 있다.

이렇게 '動物的 사람들'이 不遜 不敬하니 언제 어떻게 '人間'이 되겠는가 寒心함을 禁할 길이 없다.

敎育者라고 하는 사람들, 大哲學者라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 '動物的 사람'과 '사람됨의 뜻''人間됨의 뜻'을 구별할 줄 모르니 어떻게 그분들에게 참된 '人間敎育'을 실시하기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現代敎育은 人間敎育이 枯渴되어 가고 있으며, 人生學生들이 動物的 사람이 되어 가는 것 불가피한 추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몇 千年 몇 萬年 이후 人類歷史가 지속되는 날까지 人間들의 品位가 上昇하는 未來史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人種들 「人間되는 一步學」부터 人生學生 必須科目으로 義務的 敎育받도록 할 것이며, 人生은 모두 百歲이상 上壽하더라도 學生이라는 敬虔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몸은 늙되 마음은 歲月따라 푸르게 밝은 人間이 될 것이다.

4. 敎育者와 敬

먼저 敎育者의 槪念부터 定立하자면 역시 表音文字를 통한 語源 파악보다는 表意文字的 理解가 槪念의 內包를 포착하는데 효과적이다. 즉 '스승'이나 'teacher'보다 '先生'이라고 하는 日常的 言語속에서 '스승'됨의 原因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스승'이고 'teacher'인가에 대해서는 各者 主觀的인 견해가 있을 수 있어도 '先生'에 관해서는 主觀이 개입될 여지 없이 '먼저 태어난 사람'인바, 여기에 두 가지 樣相이 따르게 된다. 즉 肉身의 生年月日이 앞선 것과 精神이 앞선 두 類型으로, 前者는 年長者이며 后者는 先覺者이다. 正常

人의 경우라면 年長者는 人生의 經綸에 비례해서 깨달음도 年下者보다 앞섰다고 보아야 하겠기에 日常生活에서 年長者에 대한 敬稱으로 통용되어 진다. 그러나 '先生님'으로 尊稱을 追加할 때의 眞意는 肉身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事實 이상의 尊敬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先生님'됨의 本質이며, 그 本質을 갖추지 못한 敎育者는 남을 敎育할 資格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敎育者의 本質問題는 精神的으로 '先覺者'됨이요 '先導能力을 갖춘 先導者'됨에 있는 것이며 他의 模範이 될 '示範人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先生님'됨의 職種에는 두 類型이 있는 바 하나는 人間自體가 즉 人間됨이 模範人됨이요, 다음은 各 職種에 따라 技術 技能面에서 앞선 示範人됨이 그것이다. 前者는 主體的 敎育者로서 '人格者 先生님'이라 하겠고, 后者는 '技術職 先生님'이라 할 것이며, 前者는 길이 尊敬받을 스승像이지만 后者는 敎育 履修 中에는 敬意를 표하나 일단 익히고자 하는 技術知識을 傳受한 다음은 마치 필요한 物品 金錢으로 교환한 商行爲처럼 尊敬心이 殘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尊敬받을 敎育者가 되는 길은 各者 專攻 知識만 전달하는 技能職 先生에 만족하지 말고 人間됨이 優越해서 관계하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有益함을 베푸는 先覺者 先導者的 조건을 갖추는 일이다. 특히 大學敎授職에 있는 敎育者들에게 專攻知識商人이 되지 말기를 强調한다.

이제 永遠한 敎育者像의 模範 孔子를 통해서 어떻게 그 資質을 쌓아 갔는가 알아본다.

論語 一章 첫 句節이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로 시작하는 것을 보아도 孔子처럼 배우기를 좋아 한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단순히 知的 好奇心 때문이 아니라 배운 바를 곧 實踐에 옮김으로써 向上된 새로운 自己를 發見하고 기뻐한다는 것이다.

孔子는 무엇을 배웠던가? 물론 당시의 古典을 통해서 知的 學問을 익혔겠지만 그 보다는 社會生活을 통해서 옳고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眞實한 人間을 배우려 노력하였음을 다음 句節에서 엿볼 수 있다.

『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論語:述而)

여기서 말하는 三人은 첫째 孔子 自身, 둘째 自己보다 깨달음이 앞선 사람, 셋째 自己보다 不善한 者인바, 孔子는 自己이외의 두 사람을 모두 스승으로 생각하여 人間을 배웠다는 것이다.

自己보다 착한 사람은 더욱 착하기를 奮發시키는 先覺者로서 스승이요, 不善者는 惡이 무엇인가 例證하여 自身으로 하여금 惡의 素地를 제거토록 하는 스승으로 보았다. 그래서

『見賢, 思齊. 不見賢, 而內自省也』(里仁)

하였던 것이다.

착하고 어진 이를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노력하고, 어질지 못하여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自己 內心에도 그러한 素地가 있는지 反省의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生活 現場 모두가 教育의 場이라 보았다. 이러한 孔子에게도 苦惱이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告白하였다.

『子曰 德之不修, 學之不講, 聞而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述而)

人格이 날로 向上되지 않는 것, 배운 바를 몸으로 익히지 못 하는 것, 옳다고 들은 것을 곧 實踐에 옮기지 못하는 것, 옳지 못 한 줄 알면서 고치지 못하는 것 등이 自身의 근심하는 바라고 하였다. 이것이 孔子뿐 아니라 全人類의 공통된 고민일 것이지만 그것을 매일같이 是正하고자 노력하였기에 末年에 급기야 『七十而 從心所欲, 不踰矩』(爲政)의 境地에 이를 수 있었다.

참으로 人類 最大의 스승일 수 있는 것은 自己 以外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여 敬遜하게 不足함을 反省하고 是正하기 一心이었다는 点, 모든 教育者 길이 銘心해야 할 것이요 **大敬**을 배워야 할 것이다.

5. 宗敎人과 敬

人間社會에 왜 宗敎가 있는가 할 때 그것은 宗敎의 通說的 定義를 통해서 알 수 있다.

「崇高하고 偉大한 對象 곧 超自然의 神·佛을 숭배하고 신앙하여 安心安身 立命과 幸福을 얻으려는 일」이기 때문에 宗敎가 있고 그 生活을 하는 것이다. 宗敎는 人間이 神 혹은 絶對者와 精神 또는 靈으로 교섭하는데서 이루어지는바, 客觀的으로 證明할 수 없는 靈的 交涉이 宗敎行爲라는데서 각양 각색의 宗敎가 있게 마련이다. 여기에 참된 宗敎가 있고 참되지 못한 宗敎가 있으며, 참된 宗敎 中에서도 옳은 信仰生活을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問題가 있어 本項에서는 옳지 못한 宗敎와 問題있는 宗敎生活人을 言及하기로 한다.

먼저 옳지 못한 宗敎를 말할 때, 첫째 異端宗敎를 들면 自身이 信奉하는 宗敎가 社會正義에 어긋난 敎理를 내세운다면 文化宗敎라 할 수 없다. 올바른 歷史發展에 도움을 주는 宗敎라야 文化宗敎일 것이요 歷史의 公路에 어긋난 宗敎라면 文化宗敎가 못될 것이다.

둘째 似而非宗敎는 形式은 갖추고 있으면서 宗敎 眞義가 빠진 假宗敎를 말한다. 이 假宗敎는 宗敎目的인 精神의 安心 安身 立命은 멀리하고 世俗의 物慾을 主 目的으로 하는 것이 特色이다.

셋째 迷信의 경우, 宗敎의 定義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벗어나 幻想界를 現實界로 착각시키는 믿음의 强要이다.

迷信은 現代 文化社會에도 賢明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침투되기가 쉬우니 實은 原始時代 原人들도 宗敎의 단서로 多神敎 애니미즘(Animism)등이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現代 속에서 荒唐한 迷信에 빠지는 사람들은 現代版 原人이라 하겠다.

이제 異端宗敎 似而非宗敎 迷信이 아니기 위해서는 基準이 뚜렷해야 하겠으니 그것은 올바른 道德과 倫理의 바탕 위에서 宗敎的 所望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實例를 들어보기로 한다.

韓國 最近世史에서 21世紀 新 人類史의 改革을 할 指導原理로서의 宗敎를 제시하였으니 甑山이 創導한 相生大巡思想이다.

그러나 文化宗教라 公認한다 하더라도 信仰人이 얼마나 眞實한 宗教生活을 하는가 不正한 生活을 하는가에 따라 宗教人의 評價는 千層萬層 無限할 것이다. 有神宗教人의 경우, 至高至善한 絶對神과 靈的 交涉하자면 信仰人 自身이 얼마나 眞實하고 善良한가에 따라 神도 加護하고 그 마음 속에 들어올 것이요 不善한 者라면 神은 떠날 것이다.

다음 無神宗教인 佛教人의 경우, 깨닫기 즉 '覺'하기 위해서 佛教人이 되었다면 얼마나 心性을 맑고 곱고 眞實하게 陶冶하기 最善을 다하였는가에 따라 '覺'도 그 水準에 이를 것을, 宗教人답지 못하게 慾의 對立과 紛爭이 시끄러울 때 결코 佛徒라 못하겠다.

旣成 文化有神宗教人 無神宗教人 모두 얼마나 心性을 陶冶하여 眞하고 善하고 아름다운가에 따라 宗教目的에 도달할 것을, 實踐 修道 努力이 없다면 反文化 宗教人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 点 旣成 文化宗教人들 크게 反省할 것이요 自重해야 하겠으니 一言으로 '敬'一字를 한 時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神 앞에서, 佛 앞에서 敬虔하게 마음을 곱고 맑고 참되고 착하기를 다짐하는 誠心이 敬心이다.

'敬'앞에서는 모든 宗教人이 宗派를 초월해서 宗教目的에 다달을 것이다.

大巡眞理會의 경우, 新興民族宗教로서 旣成 文化宗教 以上 倫理 道德에 철저한 文化宗教의 素地가 풍부하나, 都典 化天이후 日益 발전하던 道勢가 內分상태에 있음은 全道人들이 안타깝게 생각함이다.

相生倫理를 바탕으로 한 宗教가 不和 相剋 相衝하여 분열된다면 反宗教 反道行爲를 宗教人들이 犯하니 自己들의 布德을 믿고 道人이 된 隨伴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다.

指導者들이 실천하는 길은 남을 살린다고 布德하기 앞서 나부터 相生倫理를 지켜 相和의 示範을 보이는 일이다.

宗團을 분열하고 甑山精神을 배반하고서 醫統받고 得道하여 道通하기를 바란다면 司法考試 豫試에 번번히 不合格하고 判事然함과 같고, 車運轉 면허시험에 不合格한 사람이 車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과 같다.

同宗教人은 親 兄弟처럼 화목해야 할 것이요, 分裂·反目하면 慽(척)이 깊

히 쌓여 怨恨관계가 맺어지고 怨讐(원수)사이가 되어버리고 만다.

무엇보다도 먼저 本人이 正宗敎人 正道人 되고서 남을 布德해야 僞善者가 되지 않는다.

正道人은 相生倫理 實踐하여 모든 사람을 尊敬하는 敬虔人이므로 甑山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참 道人이다.

6. 政治人과 敬

政治에 대한 定義를 가장 간단하고 明確하며 永遠히 不變할 眞義로써 闡明한 것은 孔子의 『政者 正也』(論語: 顔淵)일 것이다.

그리고 政治人에게 내린 警告로 『子曰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論語: 子路)라 하였으니, 爲政者는 오로지 正直할 뿐이요 만일 不正하다면 아무리 法令을 嚴格하게 집행해도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2500年前 古代 君主政治體制의 敎訓이라 하겠지만 現代는 民主政治時代이므로 모든 國民이 王인 이상 國民 모두가 正直해야 한다는 論理이다. 또 『子曰 爲政以德.』(論語 : 爲政)이라 하였으며 『孔子曰…爲國以禮….』(論語 : 先進) 이라 하였으니 政治人은 道德人이어야 하며, 禮義바른 國家를 만드는 것이 政治라 하였다. 또한 禮義바른 國家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顔淵) 라 하였으니, 얼마나 明快한 政治論인가? 君王은 君王으로서의 身分과 義務를 다 할 것이며, 國民은 各者 자기 위치를 바르게 지킬 것이요, 家庭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道理를 바르게 지키고 子息은 子息다워야 한다는 正名主義가 政治觀이다.

이 政治論이 2500年이 지났다해서 낡은 理論일까?

政治人은 道德을 갖출 필요없고, 無禮해도 좋으며, 國民 각자 不正을 일삼고, 家庭마다 아버지가 누구이며 子息이 누구인지 紊亂하면 그 國家社會, 現代 未來는 좋다 하겠는가?

이러한 國家는 政治自體가 없는 混亂之境일 뿐이라 하겠다.

現代 政治人들에게 道德政治 즉 德治 禮治 正名政治를 强調한다면 BC 5世紀로 착각한다고 하겠지만, 오히려 21世紀 政治論에 그치지 않고 210世紀 뿐 아니라 太陽이 꺼지지 않고 그 밑에 人類가 生存하는 限 永遠히 新鮮한

眞政治가 될 것이다.

現代 民主政治에서 가장 큰 잘못은 國民 모두가 나라의 主人이요 王이라고 하면서 依旧하게 民選 王으로서의 大統領이 王位에서 統治하고, 各 地方에서 選出된 國會議員이라는 代議士가 國民의 主權을 마음껏 執行하고 있으니, 國民은 어떻게 主人된 權利를 投票하는 것 이외에 恣行하는 것 있는가?

原則的으로 民主政治에 있어서는 政治人이 별도로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 國民 모두가 最高의 政治人인 王이므로 나라 政治에 깊은 關心을 갖고 參與해야하며 되도록 많은 國民이 政事에 參與할 수 있도록 制度化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東西洋 先進 民主國家들까지 政治人 政治家가 특별히 있는 것으로 共認하여 公認된 政治家然하고 있다. 그래서 國會議員으로 한번 當選되면 두 번 세 번 그 以上 終身 當選되고자 온갖 權謀術數를 부리고 있다.

참으로 잘못되어도 더 큰 잘못이 없을만큼 큰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是正할 뜻을 公開하는 사람이 없어 民主主義의 앞날이 암담할 뿐이다.

國會議員 選擧法을 國會議員들이 장악하고 있는 限, 그들의 政治慾은 죽어야 끝나서, 終身 國會議員制度는 正當化할 것이다.

政治家라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特技가 무엇이며, 專門性이 있어서 出馬했으며 專門的 特技가 뛰어난 사람만 當選되던가?

特技가 있다면 政治慾이 누구보다 强하다는 것, 慾心 競爭場에서 第一等해서 當選할 수 있는 것이 特技라는 것이리라.

오늘날 政治人이라는 사람들, 政治慾强心者라는 嚴然한 事實을 놓고 볼 때 여기 道德과 禮義가 싹틀 餘地가 있겠는가?

十萬名 中에서 一名 四年에 한 번 뽑히는 政治人이 두 번 세 번 그 이상 自己 혼자 當選되겠다는 그 慾心만으로 充分히 反民主政治人이라는 心證이 明白하다.

이러한 政治慾强心者들을 形式的 民主主義의 이름으로 政治的 自由를 合法的이라 助長하고 있다.

이러한 政治人들에게서 '正'의 政治 바른 政治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現代 政治人들은 慾心이 强해서 그 行態가 不敬하기 이를데 없다.

마땅히 民主政治라면 모든 國民이 參政할 수 있는 機會의 門을 넓히기 위해서 當選 一回로 規制하고, 數 萬名 줄서있는 새 사람들에게 幸運의 機會速度를 높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政治野慾이 가슴에 꽉 차 있는 反正 似而非 政治人이 絶對로 再選되는 일이 없도록 全國民의 이름으로 國會議員選擧法 뜯어 고쳐야 한다.

오로지 바른 사람(正義人), 높은 人格者, 國民 앞에 敬虔한 사람, 私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賢明한 사람, 어떻게 해야 單 한번의 기회 國利民福을 위해서 最善을 다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을 選出해야 한다.

一言으로 '敬'一字를 身命을 바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民主政治人의 資格者라 하겠다.

結 論

筆者는 30代 末期에 이미 人性觀의 所信이 어느 정도 잡혀 人生問題에 관한 論文 方向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21世紀가 시작되는 今年 6月에 시작한 本論文 「人格 無限 內實擴充化 德으로서의 敬 研究」에서 人生問題에 確信 갖는 글을 발표하였다.

本人 個人으로서의 主張이라기 보다 人生에 관한 研究를 하여 온 學徒로서, 人生을 研究하는 同路學者들에게 公言한다.

21世紀부터는 人類의 人生觀이 바뀌어 새로운 人生觀으로 人類歷史가 새 出發하자는 것이다. 여기 結論에서 긴 말은 줄이고 本論文 緖論에서 言明한 바 있는 「人格圖」한 장으로 하고 싶은 수많은 말을 闡明하였음을 밝힌다.

人生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事實만으로는 絶對로 尊嚴하지도 最貴하지도 않은 動物에 不過함을 確信하고 새 出發하자 것이다.

圓을 半分하여 半分 道徑線 '0'은 人生 出生 당시의 모습으로 모든 動物과 同格이고, 成長하면서 옳고 좋은 敎育을 받고 잘 익히면 '十' 1·2·3…으로 向上, 人格者·善人으로 成長하며, 옳고 좋은 敎育을 받으면서 受容하지 않거나 拒否하면 '一' 1·2·3…로 下落하여 失格者가 되어 惡人이 된다

고 하였다.

今年 8月初에 筆者가 中·高等學校 敎師 硏修 講義가 있어 敎材의 일부로 本論文 緖論 人格論을 강의한 바, 매우 엄숙하게 경청하며 떠날 때 감명 깊은 강의 감사한다 하고 倫理·道德敎師의 책임있는 敎育 절실하게 다짐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昨年 中高等學校 倫理 敎師 硏修 강의 때 어떤 敎師는 敎材없이 노트 白紙 한 장 筆記物 하나없이 新聞하나만 손에 들고 매일 入室하던 事實, 敎授 生活에서 平生 잊을 수 없다. 平人도 아닌 高等學校 倫理敎師라는 그런 者에게 倫理 道德을 교육받는다면 人格 向上에 도움을 주겠는가?

그런 사람은 이미 人格者는커녕 '0'線 以下이므로 人間이 아닌 動物일 뿐이다. 動物에게서 人間敎育 人格敎育이 可能하겠는가?

21世紀를 맞이하면서 後天 新世界가 열리기 위해서는 各者 人生들이 嚴肅하게 自省하여 人間 以下로 下落하지 않도록 敬虔해야 하겠다.

本論文은 孔子의 人間敎育, 韓國 退溪先生의 聖人되려는 敬의 修鍊을 살펴보고, 現代 各界各層 指導級 人士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不敬하고서 '새 千年'이 아니라 過去만도 못한 未來가 到來할까 우려되어, 特히 「新歷史 創造」를 입버릇처럼 외치는 사람들 政治人들에게 警告하였다.

아울러 後天世界를 애타게 기다리는 宗敎人들에게, 누구가 새 世相을 實現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民主世界의 主體者 우리들이 모두 '敬'을 삶의 信條로 살아갈 때 不敬의 소지가 소멸되는 날이 그 날임을 밝히고 매듭짓는다.